



12면

남원시일본 히오키시 맞손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음 7월 17일) 제3338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 전북특별자치도 공감대 재확산

도, 남원시 시작 내달 11일까지 14개 시군 순회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도·시군 협력체계 강화  
앞서 지난 3월부터 권역별 시군 설명회 등 진행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전북도가 도민 공감대 확산과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다.

도는 지난달 31일 남원시를 시작으로 10월 1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순회하며 공무원과 지역 직능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권역별 시군 설명회 5월 전북시민단체연대 간담회 7월 전북연구원과 함께 권역별 시군 설명회를 진행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전북특별법 개정법안 설명과 함께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시군과 연계 특례 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 도와 시군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명칭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정보(업무시스템·웹사이트·표지판·공인·공부 등)를 안내하고 출범전까지 정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봄 조성을 위해 시군에서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찾아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명회를 가졌다.

도 설명회 추진 등 도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선8기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는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14개 시군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도민 설명회 및 정책토론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지난달 31일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향교에서 2023 전주세계문화주간 - 독일문화주간 '할로 도이칠란드' 개막식이 열린 가운데, 우범기 전주시장,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내정자, 클레멘스 트레터 주한독일문화원장, 지역 주요 인사와 독일기업 대표 등이 참석해 개막을 축하하고 있다.

## '할로 도이칠란드'... 전주시 독일 문화의 정수 '만끽'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에서 철학과 음악 영화 음식 등 독일 문화의 정수를 만끽할 수 있는 독일문화주간 '할로 도이칠란드'가 펼쳐진다.

시는 주한독일대사관은 지난달 31일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향교에서 2023 전주세계문화주간 - 독일문화주간 '할로 도이칠란드'의 개막식을 가졌다. 독일 출신 한옥 건축가인 다니엘 텐틀러 씨의 사회로 개막식이 열렸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내정자, 클레멘스 트레터 주한독일문화원장, 마틴 헬켄만 한독상공회의소 대표, 지역 주요 인사와 독일기업대표 등

전주향교서 '전주세계문화주간-독일문화주간' 개막  
6일까지 음악·미술·영화·음식 등 체험행사 다채

이 참석해 독일문화주간 개막을 축하했다.

독일문화주간은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6일까지 송천동 에코시티 세병공원에서 전주혁신도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전주 전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일에는 독일식 발도르프 교육 강연이 전주혁신도시에서 진행되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바이올리니스트가 협연하는 전주시립교향악단 정기공연 독일음악의 라이벌 브람스

와 바그너'가 펼쳐진다.

이어 2일 에코시티 세병공원에서 펼쳐지는 '독일을 만나다' 체험행사에는 독일음악, 미술체험, 과학실험, 꽃꽂이 등 다양한 체험부와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며, 효천지구에서는 '독일 쿠킹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1일부터 3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독일영화페스티벌'이 열리고, 오는 4일 덕진예술회관에서 마르쿠스 도이네이트 전 프랑크푸르트 음대교수를 객원악장으로 한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위대한 베토벤' 연주가 예정돼 있다.

이번 독일문화주간 행사는 베스트셀러인 '바른에 읽는 니체의 장체형 작가의 강연(5일)과 고구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의 세미나(6일)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개막식에서 "올해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이번 할로 도이칠란드 행사를 통해 연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K-문화의 정수인 전주의 매력을 독일 현지에 알리는 등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행사를 위해 후원해 주신 독일 측 관계기관과 기업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지난달 31일 모악산 정상에서 채화된 전북도민체육대회 성화.

## '김제 개최' 도민체전 성화, 모악산 정상서 채화

새만금 동서도로 포함 읍면 권역 33구간 돌고 시청 안치

180만 전북도민의 대화합 스포츠 축제,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지난달 31일 모악산 정상에서 채화되어 2일간의 봉송 대장정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산세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형상과 같다고 해 '어머니의 산'으로 불려지는 이곳 모악산의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아이를 품고 보살피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제60회 전북도민

체육대회가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길 기원하며 모악산을 채화지로 결정했다.

호남을 대표하는 모악산 정상에서 채화된 성화는 모악산 정기를 가득 담고 금산면으로 출발해, 김제시 첫 주자에게 전달됐다.

성화는 이날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응원 속에 새만금 동서도로를 포함한 읍면 권역 33구간을 돌고 김제시청에 안치되었으며, 이날 오후 4시 출정식을 시작으로 시내권역 13구간을 돌아 최종 도착지인 시민운동장 성화대에 점화될 예정이다.

점화된 성화는 대회기간 동안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과 안녕을 기원하며 김제시를 환히 밝히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대회 3일간 김제시를 밝혀줄 성화가 180만 전북도민 체육대회가 전북도민이 하나되는 성공적인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시군 선수가 그동안 흘린 땀방울 만큼 값고 달콤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 BANBAN

## 제27회 The 27th Muju Firefly Festival

# 반딧불축제

2023.  
9/2(토) - 9/10(일)

주최: 무주군

주관: MBC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환경부 전북특별자치도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문의: 063)324-2440